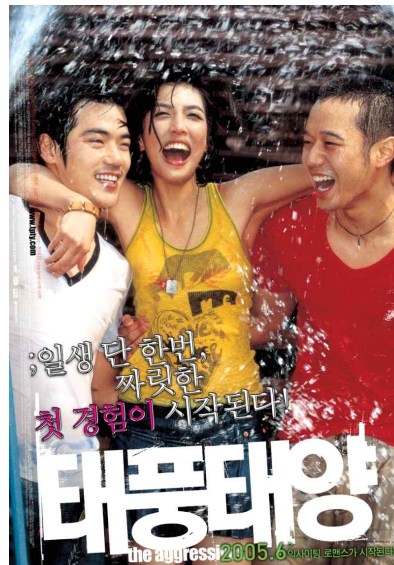


보도사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35mm 필름으로 만나는 <태풍태양>

6월 21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태풍태양> 20주년 특별상영
정재은 감독, 배우 천정명·이천희와 함께 관객과의 대화(GV) 참석



▲ 태풍태양(2005) 포스터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정재은 감독의 청춘 영화 <태풍태양>(2005) 개봉 2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6월 21일(토), 시네마테크KOFA(상암동 소재)에서 특별상영을 개최한다. 이번 상영은 한동안 극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태풍태양>을 35mm 필름 프린트로 상영하는 드문 기회로, 디지털 시대에 보기 힘든 영화 본연의 질감과 호흡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태풍태양>은 2000년대 초반 서울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팅을 중심으로, 당대의 청춘 문화, 패션, 클럽과 언더그라운드 음악, 자유로운 청춘들의 몸짓과 속도를 감각적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기존 상업영화 문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선과 리듬감 있는 영상은 당시 한국영화계에서 보기 드문 시도로 평가받았다. 특히, 배우 천정명은 이 영화를 통해 26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6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태풍태양>은 청춘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꾸준히 재조명되고 있다.

상영 후에는 정재은 감독과 배우 천정명, 이천희가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된다. 이번 GV에서는 작품의 제작 과정은 물론, 2000년대 청춘의 분위기와 그 시대 특유의 감성을 직접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획은 필름이라는 매체가 지닌 물성과 시간성을 통해 잊히기 쉬운 세대의 감수성과 시대의 공기를 다시 불러오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태풍태양>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영화'가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청춘의 기록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영상자료원 홈페이지(<http://koreafilm.or.kr/cinema/program.as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상영은 무료이다.

[참고자료] 프로그램 개요

<태풍태양> 개봉 20주년 특별상영

- 기간: 2025년 6월 21일(토) 12시
-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1관
- 입장료: 무료
- 상영작: <태풍태양>(2005, 정재은) 1편 상영
- 부대행사: 6월 21일(토) <태풍태양>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정재은 감독, 천정명 배우, 이천희 배우, 진명현 무브먼트 대표)

[시놉시스]

내성적이고 무기력한 고등학생 소요(천정명)는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된 채 일상을 보내던 중, 인라인 스케이팅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한다. 공원에서 혼자 연습을 거듭하던 그는,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는 모기(김강우)와 그의 팀을 발견하고 그들의 세계에 매료되어 다가가게 된다. 한주(조이진)의 소개로 팀에 합류한 소요는, 모기와의 동경, 한주에 대한 감정, 팀의 리더인 갑바(이천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삶과 사랑, 그리고 자신을 발견해간다. 그러나 CF 촬영 중 발생한 사고로 팀은 큰 빛을 지게 되고, 모기는 스케이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팀은 위기에 처한다. 소요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다시금 고민하게 되는데...